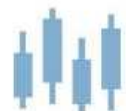


WP 19-17

도시재생 거점시설 역할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 방안

- 시설별 국가적 최저기준을 적용한 접근성 분석

김유란 국토연구원 연구원 (yrkim@krihs.re.kr)



※ 이 Working Paper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저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연구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은 저자의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고, 인용 시에는 저자 및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례

01 서론	05
02 생활SOC 복합화 정책 추진 현황	07
03 생활SOC 복합화 사례 분석	15
04 접근성 개념을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 과정	23
05 정책제언	35

01 서론

-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방안’ 발표에 따라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본격 추진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2019.4)」,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 가이드라인(2019.6)」을 발표하며,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본격적인 추진
- 정부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2019년 6월)하였지만, 사업추진을 위한 객관적인 공간분석과, 지역 수요에 맞는 시설 도출과정에 대한 내용 미흡
 -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지역 수요를 바탕으로 공간분석을 실시하여 필요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이어야 하나, 현재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중복검토만 하고 있어 공간적 분석 필요
 - 또한 지역에 맞는 시설선정 과정과 지방정부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대한 역할 안내가 미흡하여, 현재 광역지자체는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추진경과와 유사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도시재생 거점시설로서 생활SOC 시설선정 도출과정 방법과 광역 및 기초지자체 역할 제시를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는 첫째, 그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추진경과에 대하여 살펴보고, 사업추진의 성과와 한계, 특성을 도출
 - 둘째, 기초생활인프라 시설별 국가최저기준을 활용, 이에 따른 시설별 접근성 개념을 적용하여 생활SOC 사업의 시설선정 및 도출과정에 대한 방법 제시
 - 셋째, 이를 통해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역할 제시
- 도시재생 거점시설로서의 생활SOC 복합화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도시재생뉴딜을 통한 ‘기초생활인프라 확충’과 연계 추진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접근성 분석과, 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주민들의 거점시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현재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초생활인프라 16개의 마을 단위 세부시설에 대해서는 시간기준으로 국가적 최저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광역지자체

별로 200m*200m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분석결과가 배포되어 있어 지역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성이 큼

- 또한, 생활SOC가 도시재생거점시설로 작동되어야 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위치에서 활용 가능한 시설을 선정함으로써, 시설의 지속적인 활용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가꾸어 추후 시설의 운영·관리를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 이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본 연구는 **생활SOC 시설복합화 과정** 및 **광역·기초지자체의 역할 제시**에 초점
 - 생활SOC 복합시설은 주민과 근거리에 위치하며 누리는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 위치하는 객관적인 공간 분석과 지자체의 역할 정립이 중요
 - 본 연구가 생활SOC 시설복합화 과정 및 광역·기초지자체의 역할 제시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현재 추진 중인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정을 시설별 접근성 분석을 활용하여 시민 중심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여 사업추진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함
 - 공간분석에 따른 기능 및 위치 선정과 광역 차원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은 지속가능한 생활SOC 사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본 연구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실제적인 사업주체인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

02 생활SOC 복합화 정책 추진 현황

1) 생활SOC 개념

-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생활SOC 3개년 계획(안))
 - ‘국무총리 훈령(제2조)’에서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이라 정의(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생활SOC는 기존의 도로 및 철도 등 SOC 시설과는 차별적으로, 시설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국민이 생활하는 터전에서 손쉽게 접하게 되는 여가·건강·안전·환경 분야 등과 관련한 소규모 생활인프라를 의미(임미화 외 2019)
- 이와 유사한 의미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서도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을 수립하여 확충하도록 되어 있음
 - ‘기초생활인프라’의 개념은 국민행복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의 기반이 되는 기초서비스시설 및 지역공동체 회복의 거점공간이 될 공동이용시설을 국가적 최저기준을 수립하여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함(국토교통부 2013).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최저기준 설정은 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공급 필요성에 근거하여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국토교통부 2013)
- 지금까지의 SOC는 생산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 한정되었으나, ‘생활SOC’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시설로 일상생활이 기본전제인 안전시설 및 생활밀착형 시설로 정의되며 ‘기초생활인프라’ 개념과 함께 통용되고 있음

그림 1 생활SOC의 개념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9a.

2) 생활SOC 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

■ 관련 정책 추진 현황

-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2018년 8월 '생활밀착형 생활SOC 확충 방안'을 발표
 - 정부는 체감 가능한 생활SOC 확충에 중점을 두고, 국민의 “우리 주위에서 손에 잡히는 변화”를 미래의 청사진으로 생활SOC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시행(관계부처 합동 2018)
 - 생활SOC의 정책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 : ① 국민 삶의 질 향상, ②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③ 생활 안전 및 환경의 질 개선
 -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2019년 4월)」,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가이드라인(2019년 6월)」을 발표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

표 1 생활SOC사업 관련 범정부 추진일지 및 주요 내용

일자	관련부처	주요 내용	비고
2018.08.27	부처 합동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	15차 경제 장관회의 안건 중
2018.08.31	국무조정실 (총리비서실)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인프라 공급에 앞장서겠습니다	13차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2018.10.04	국가건축정책 위원회(국토교통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SOC, 동네 건축부터 확 바꾼다 (공공건축혁신 9대 핵심과제 본격 추진)	
2018.11.01	부처 합동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 확대방안 - 2019년 생활 SOC 투자 확대방안(약 8.7조 원) - 공공기관 투자, 규제혁신 등 통한 생활SOC 투자 확대	19차 혁신성장 관계 장관 회의
2018.11.14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생활SOC 등 전국 14곳 도시재생시범사업지 지원계획 (2,257억 원) 확정	14차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2018.11.29	국토교통부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2018.12.17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제1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개최 (생활밀착형 SOC 확충 위한 3개년 계획 수립-2019년 3월까지 추진)	
2019.01.23	부처 합동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	4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2019.04.15	관계부처 합동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생활SOC 3개년 계획(안)* 발표 -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2022년 30조)	* 계획(안) 발표 이후, 추가 확정 발표 없이 원안 수용으로 추진 중
2019.04.26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주민센터 등 생활 SOC 디자인이 개선됩니다(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	
2019.06.03		민간건축가 참여로 생활SOC 등 공공건축디자인 품질 높인다	
2019.06.13	관계부처 합동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 가이드라인 확정 - 2019년 9월 말까지 2020년 생활SOC 복합화(10종 시설) 사업 선정 추진	15차 균형발전 위원회 회의
2019.10.31	관계부처 합동	생활SOC 복합화 사업 전국 289개 선정	

출처: 임미화 외 2019, 4, 재수정.

■ 생활SOC 3개년 계획 발표(관계부처 합동, 2019년 4월 15일)

- 비전: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
 - 2022년까지 총 30조 원을 투자하여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 구축 목표
- 목표: 2022년까지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¹⁾ 구축
- 3대 분야: 여가활력, 생애돌봄, 안전·안심
 - [여가활력] 활기차고 품격 있는 삶터: 10분 내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실내 체육 시설을 3.4만 명당 1개소 수준으로 공공체육인프라, 문화시설, 취약지역 기반시설 확충
 - [생애돌봄]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어린이·취약계층 돌봄시설, 공공의료시설 확충
 - [안전·안심]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 안전한 삶터 구축,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 총 투자규모: 3년간(2020~22년) 총 30조 원(지방비 포함 시 48.3조 원) 투자

■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 가이드라인 발표(관계부처 합동, 2019년 6월 13일)

- 2019년 6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복합화대상 시설을 선정, 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발표
 -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복합화 대상 10종: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주거지주차장, 가족센터
- 복합화의 형태: 수직복합화, 수평복합화, 중복복합화
- 사업유형은 생활SOC가 부족한 지역의 고유 특성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

표 2 생활SOC 복합화 사업 유형

사업유형	정책목표	주요 내용	주기능 시설
돌봄플랫폼(①)	고령화 및 돌봄 수요 대응	• 지역의 돌봄 수요를 고려한 공동체 기반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주민건강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체육플랫폼(②)	주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제고	• 지역의 스포츠·여가 수요를 고려한 생활밀착형 융복합 스포츠·여가 공간 조성	국민체육센터
문화플랫폼(③)	문화 중심 지역 자치 기반 구축	• 지역의 문화 수요를 고려한 융복합 거점 문화 공간 조성 및 생활문화 공동체 육성 지원	공공도서관
복합플랫폼	소통·협력 기반의 사회혁신 활성화	• 일, 삶, 놀이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융복합 창의 공간 조성	①+②+③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9b, 6.

1) 핵심생활인프라 공공도서관,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다함께 돌봄 센터, 초등돌봄교실

- 정부의 지원 및 시도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정부가 지원하는 생활SOC 복합화를 통해 지역의 필요한 시설을 복합화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에 필요한 기능 및 방법에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유도
 - 또한 광역시·도에서 시·군·구별 복합화 사업이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
 - 향후,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지역불균형 해소 및 균형발전 정책을 연계 추진하여 정책 시너지 강화

■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자료 및 분석(국토교통부 2018c)

- 2018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에서는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을 개정
- 기초생활인프라의 개념 재정립
 - 기존의 방침기준에 따라 도시재생기반시설로 한정하지 않고, ‘거주지 근린에서 거주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생활편의와 복지를 제공하는 시설’로, 근린영역의 주민 생활밀착형 시설로 확장하여 기존 시설들을 모두 포괄
 - 기초생활인프라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기능의 시설로 범위를 개정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체감도가 높은 시간 단위로 국가적 최소기준을 제시
 - 기초생활인프라는 마을단위시설과 지역거점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며, 마을단위시설은 도보, 지역거점시설은 차량 시간 거리로 제시
- 기초생활인프라 시설: 지역거점시설 및 마을단위시설로 구분
 - 시설의 위계와 규모를 고려하여 공간적 집적을 통해 규모화가 필요한 시설과 접근성 제고를 통해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시설을 구분하여 지역거점시설과 마을단위시설로 구분
- 전국의 기초생활인프라 16개 시설(마을단위시설)을 200*200 접근성 분석을 실시하여 해당 지자체에 배포하였으며,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표 3 지역거점 및 마을단위시설 구분

구분	공간위계	공급목적	공급주체	규모	서비스위계	기능복합
지역거점시설	소생활권 (국계법상 도시기본계획)	낙후지역 개선	공공	대규모	고차	대규모 복합시설
마을단위시설	마을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 기준상 근린권역)	아파트 수준 편의/복지	공공 우선투입 (민간고려)	소규모	저차	소규모 다기능시설 (마을커뮤니티센터)

출처: 국토교통부 2018, 3.

■ 서울시 10분 동네 사업(서울도시재생포털, 2019년 9월 25일 검색)

- 서울시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 추진은 민선 7기 시정 4개년 핵심 과제 중 하나
 - 주민주도의 공동체가 살아 있는 ‘10분 동네’ 마을 재생을 목적으로 취약한 생활편의시설을 공공에서 우선 공급하고, 사회적 기업·공기업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저층 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²⁾하여 소규모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마을주차장 확충: 유희 공간 활용 등 다양한 주차장 설치방안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인근 여유주차장 활용, 인접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공영주차장 확보 등)
- 재생지역, 해제지역 등 생활SOC 취약지역 대상 10분 도보권 내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SOC 확충(도시재생지역 및 해제지역 우선 추진, 빈집 활용)
 - 생활SOC가 취약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확충하며 도시재생지역, 해제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검토. 이후 일반지역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 빈집·국공유지 등 유희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설치(빈집 활용 연계 추진)
 - 시설은 생활체육시설, 마을주차장, 쌈지공원, 작은 도서관, 노인정, 어린이집 등
- 2019년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 자치구 선정 기준: ① 추진의 시급성, ② 추진 효과성, ③ 지역 간 형평성을 종합 검토
 - (추진의 시급성) 시범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높은 자치구-저층 주거지 면적, 정비사업 해제 지역 면적, 도시계획 규제지역 등이 많은 지역
 - (추진의 효과성) 시범사업의 파급효과가 높은 자치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연계
 - (지역 간 형평성) 생활권별 안배, 자치구 재정자립도 고려
 - 시범사업 공급시설은 선정된 13개 자치구에 대해 취약 생활SOC를 분석한 후 자치구와 협의과정을 통해 최종시설을 결정.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지확보지역을 우선 선정, 2개 이상의 시설복합화 추진 시 인센티브 부여
 - 사업 시기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개년 단위로 추진 예정

2) 서울특별시 조례 제7197호, 2019년 5월 16일 조례 제정 및 공포

-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3개년(2020~22) 종합계획 수립(서울연구원)
 -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일상생활에 밀접한 주민생활 편의시설인 생활SOC 공급을 위한 지역별 현황 실태 분석과 이를 통한 체계적인 중장기 확충계획 마련

그림 2 서울시 10분 동네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출처: 서울도시재생포털(<https://uri.seoul.go.kr/surc/seoulInfo/socPilotProjectPromotion.do>)

3) 도시재생 거점시설(지역거점)로서 생활SOC 복합화시설의 중요성

■ 정책 및 사업의 성과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투자 및 지원 확대: 그동안 주민들의 공공서비스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지방정부의 비중이 더 컸으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 추진이 어려웠음. 하지만 정부 차원의 투자 및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일상생활의 변화를 느끼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 가능
 - 현행의 공급체계는 1개 과가 1개 시설을 공급하고 있는 칸막이 방식이었으나, 복합화를 통해 시기 및 기간을 조율하여, 한 개의 단위시설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적 추진이 가능
- 사업추진의 기반여건 마련: 대표적으로 하나의 부지에 여러 시설을 복합화함으로써 부지 효율성을 높임

- 기초생활인프라의 개념 재정립을 통한 국가적 최저기준을 수립하고, 국가적 최저기준 수립 및 접근성 기준 도입을 통해 시설의 서비스 취약지역을 도출하여 기초생활인프라 공급계획 수립 시 참조 가능하도록 함
- 하지만, 현재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인근에 사업내용이 유사·중복되는 기존 시설 또는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검토만 있을 뿐,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 및 부족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공간 분석이 부재하는 정책적 한계 존재
 -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 집행 가능성(부지확보, 재원조달 가능성, 운영·관리계획)을 평가 하지만, 시설의 기능 및 위치에 대한 **광역적인 지리적 접근성**에 대한 검토 필요

■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의 필요성

- 생활SOC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취약한 생활인프라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과 밀접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음
- 생활SOC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에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시설
 - 생활SOC는 주민이 직접적으로 체감 가능한 사람 중심의 SOC 시설이며,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음
 -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도시재생의 앵커시설로, 생활SOC 시설복합화 사업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음
- 최근 지자체에서는 부지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한 개의 부지에 한 개의 시설만을 유치하는 것보다 다양한 시설을 함께 복합화하는 것을 선호(관계부처 합동 2019a)
 - 또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화 지역에서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생활SOC시설보다 집적·복합화되어 있는 시설이 이용자 편리성이 높음
- 생활SOC 복합화를 통해 도시재생 거점시설으로써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주민들이 물리적·유기적으로 융합 및 발산하는 공간을 조성
 - 복합화를 통해 공급된 거점시설은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단일의 건물에 공급되며, 이는 세대 간 융합 및 다양한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공급하기에 효과적임
 - 거점시설은 주민들 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장이 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 주도의 운영 및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형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
- 생활SOC 복합화시설을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은 마을공동체 거점으로 활용 가능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활력 또한 제고할 수 있음

■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특성 도출

- 생활SOC 복합화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살펴본 결과, 거점시설은 주민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접근성과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집객성, 프로그램 및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성의 특성을 가지며, 생활SOC 공급 시 취약지역에 우선 공급하는 생활SOC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야 함
- 4가지 특성을 활용하여 생활SOC의 공간적 분석을 위한 정책 특성의 틀로 제시
 - 이러한 특징을 가진 생활SOC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역할을 수행할 때, 더욱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해지며, 지속가능한 시설 및 지역 운영 관리를 위해서 고려되어야 함
 - 네 가지 특성(접근성, 집객성, 참여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이 공급될 때, 효과적으로 지역의 거점시설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

표 4 정책의 특성 도출

구분	생활SOC 정책 및 사업			
	생활SOC 3개년 계획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가이드라인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분석	서울시 10분 동네
특징	3가지 목표 추진 (여가·활력/생애 돌봄/안전·환경)	생활SOC복합형태 제시 (돌봄/체육/문화/복합플랫폼)	마을거점, 지역거점을 구분하여 공급현황분석	생활SOC 취약지역 우선 공급
특성 도출	다양한 연령계층을 아우르는 집 객성	다양한 연령계층을 아우르는 집객성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사업의 시급성

출처: 저자 작성.

03 생활SOC 복합화 사례 분석

1) 분석의 틀

■ 생활SOC 복합화시설의 거점시설 역할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제 운영 중인 사례와 계획 수립 중인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

- 본 장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거점시설로서 역할 및 성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정부 지원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에는, 지자체의 자체사업이나 해당 부처 개별사업으로 운영·추진되었음
 - 생활SOC 복합화 사례 중 하나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된 ‘금산군 다락원’과, 지자체사업으로 추진된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 도시재생뉴딜의 어울림플랫폼 사업인 ‘시흥시 정왕동 어울림플랫폼’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 ‘금산군 다락원’은 7개 중앙부처의 12개 보조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건립한 대표적인 생활SOC 복합화 사례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우수사례 중 하나임
 -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은 도서관의 기능이 주기능이나, 도서관과 함께 마을커뮤니티를 위한 문화거점 및 생활문화강좌 및 작은 영화관,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음
 - ‘시흥시 정왕동 어울림플랫폼’의 경우 아직 계획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2020년 4월 착공 예정), 도시재생사업에서 커뮤니티 거점공간의 특성과 복합화된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이들 사례를 바탕으로 생활SOC 복합화시설의 거점시설 기능을 분석하고자 함
- 거점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 가능하며, 이를 통해 특성 도출
 - 첫 번째, 주민의 삶과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해야 함(접근성(위치))**
 - 두 번째,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집객성)**. 커뮤니티 거점시설은 다양한 계층이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세대 간 융합을 이룰 수 있는 집객요소가 있어야 함

- 세 번째, 이용자들이 거점을 통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의 활동으로 확대할 수 있는 커뮤니티 수렴·발산의 거점이 되어야 함(**참여성**)
- 네 번째,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생활SOC가 부족한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지역 및 빈집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사업의 시급성**)

2) 금산군 다락원(국비지원사업)(신혜정 2005 참고)

■ 사업의 개요

-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금산 다락원은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을 건립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 10월에 개관된 복합건물임(일부 체육시설 2005년 말 준공)
 - 충남 금산군은 2000년 12월 금산읍 중도리, 금성면 양전리 일원 부지에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을 건립 목표로 추진
 - 금산군 다락원은 7개의 중앙기관이 지원하는 12개 보조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건립한 복합 문화복지시설. 부처별로 지원되는 예산을 한 부지에 모아, 각 건물의 개별성이 확보됨과 동시에 집중화시켜 건립

표 5 금산군 다락원 개요

- 위 치: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금성면 양전리 일원 / 36,266㎡(건축면적 17,143㎡)
- 사업규모: 6개 동으로 구성(생명의집(공연장), 만남의집(사무실), 장애인·청소년의집, 노인의집, 여성의집, 농민의집)
- 도입시설: 생명의집(문예회관), 도서관, 청산회관, 문화원, 건강의집(보건소), 스포츠센터, 만남의 집(관리동), 청소년의집, 장애인의집, 여성의집, 농민의집, 노인의집 등이 위치

■ 시설 현황

- 다락원은 금산의 특산물인 인삼을 프로그램 및 공간의 모티브로 삼았으며, 모든 연령대를 포괄하는 복합적인 문화복합시설을 건립
- 단지 내 시설은 개별로 위치하지만, 소공연장과 대공연장 등 공동으로 운영 가능한 시설들을 함께 건설하고, 운영·냉난방 등의 설비 또한 중앙집중식으로 건립하여 비용 절감과 함께 운영의 효율성을 높임

■ 운영 및 실태

- 각 시설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운영의 시너지 효과 발휘. 개별 시설은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개별 연령대를 타깃으로 하는 시설들이 한곳에 모여 있으면서 함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됨

- 엄마와 아이가 함께 방문하여 아이는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엄마는 요리강좌를 수강하는 등 수요자를 고려한 패키지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 효율 극대화
- 다락원은 총 3개의 부서로 운영 중. 시설의 내·외부 및 스포츠센터 운영과 환경정리를 위한 총무팀, 공연업무를 총괄하는 공연기획팀,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복지팀을 운영. 운영 측면에서도 시설별 개별이 아닌 공동 조직으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임

그림 3 금산군 다락원 부처별 지원사업



출처: 신혜정 외 2005, 저자 재구성.

표 6 금산 다락원의 업무내용 구분

구분	업무내용
총무 (관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락원 시설 업무 • 수영장 스포츠센터 입장객 관리, 기계설비 관리 및 운영 • 시설물 외부관리 및 중앙통제실, 기계실(냉난방기, 공조기), 통신시설관리, 가스설비 및 승강기 시설 관리·운영 • 다락원 내 환경정리
공연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업무 총괄 • 무대음향, 기획초청공연, 작은 영화관 관리 등 • 무대 대관업무 및 관리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업무 총괄 • 다락원 복지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및 아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애인과 아동 상설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출처: 금산다락원 홈페이지, 저자 재정리.

■ 성과 및 한계

- 다락원은 중앙정부의 할거주의로 시작은 어려웠으나, 결국 협력을 통해 각 사업비를 동시에 확보하여 7개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의 12개 보조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건립
- 건축 및 운영관리의 사업비를 절감하여 공사비 및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여러 시설의 중복기능을 통합하여(대공연장, 소공연장, 회의실 등) 개별 핵심기능을 강화함

- 다양한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운영활성화의 시너지 효과 제고
- 금산군 다락원은 주민 건강·문화·복지의 요람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음악, 수영, 제과·제빵, 취업준비까지 가능한 115개의 다양한 강좌 및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연 수강 인원이 4만 명에 이르는 등 해마다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음(굿모닝충청 2015)
- 금산군 다락원은 다양한 부처의 국비지원사업을 하나의 단일건물에 통합하여 복합기능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통해 전 연령을 아우르는 평생학습센터를 조성
 - 공용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회의실 등)을 한곳으로 집중 강화하여 공간 및 예산의 효율성을 높임
 - 하나의 단일 건물을 통해 공사비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었으며, 준공 후 프로그램 운영 또한 유기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

3)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지자체 자체 사업)(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7 참조)

■ 사업의 개요

-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은 2015년 6월에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구립공공도서관으로, 골목길을 둘러싸고 있는 노후 다세대·다가구 주택들을 고쳐 도서관 기능과 기존 마을공간, 주민생활을 융합시킴
- 2015년까지 은평구 구산동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1개의 학교가 있었으나, 지역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도서관과 문화시설은 전무하였음. 그리하여 학부모들(자원봉사자)이 주축이 되어 도서관 설립을 추진
- 본 사업은 본래 신축으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건축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예산절감을 위해 기존 건물을 최대한 이용하기로 합의, 리모델링으로 추진할 것을 주민들이 건의함. 은평구는 기존 5개 동을 리모델링하고 공연장 1개소를 증축하는 설계안을 도출

표 7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 개요

- 위치: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13길 29-23(구산동 44) / 1,572.90㎡(건축면적 860.64㎡)
- 사업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높이 14.7m
- 총사업비: 65억 원(토지, 건물 매입비 제외)
- 도입시설: 북카페, 음악도서관, 음악연습실, 생태도서관, 장난감도서관, 만화도서관, 시청각자료실, 문화강좌실, 열람실, 갤러리, 동화구연실, 열람실, 어린이독서토론실, 수유실, 다목적강당, 커뮤니티룸

■ 운영주체 및 실태

- 은평구청은 준공 전 도서관을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운영업체를 모집하였고, 도서관의 기획 및 설계 과정을 함께 한 ‘은평도서관마을협동조합’이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되어 운영
- 준공 이후 개관을 준비하며 은평구는 도서관 축제를 개최하고 도서관 중심의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서관을 매개로 한 마을 공동체 구축에 더욱 힘씀. 도서관이 물리적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주민활동을 활성화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도서관을 만들고자 함

■ 성과 및 한계

-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의 주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음. 특히 주변 학교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 주요 수요층을 고려한 청소년과 만화를 특화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였고, 단순히 책만 보는 공간이 아닌 다양한 활동의 공간으로, 주민에게는 동네 사랑방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도서관 운영을 위한 마을 주민들을 직접 고용하여 마을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그러나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한계 때문에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 입장에서 업무공간과 동선에 대한 효율적인 공간 구성이 어려움
-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은 주거밀집지역 내에 위치하여 내부적 접근성이 매우 높으며,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주민들의 생활 속에 밀접한 공공시설

그림 4 구산동 도서관마을 전경



출처: (좌)구글 이미지(구산동 도서관마을 검색), (우)저자 직접 촬영.

- 도서관 제안부터 설계, 운영까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였으며, 수요자에게 맞는 도서관이 만들어질 수 있었음
- 운영 측면에서는 마을협동조합이 도서관을 운영하여, 마을 주민들의 직접적인 고용 창출이 일어난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지역 거점·문화의 거점으로서 도서관의 전문적인 운영 및 기획 측면에서는 전문인력 투입이 요구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과정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4) 시흥시 정왕동 어울림플랫폼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계획수립 중)³⁾

■ 사업의 개요

- 시흥시 정왕동 어울림플랫폼은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2017년 12월 14일)되어 활성화 계획 승인 고시 후 사업 추진 중
 - 2017년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곳으로, 2018년 11월 활성화계획 승인 고시
-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의 단절된 토지와 미활용 공익시설용지 등이 장기간으로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고, 도로 등으로 단절현상이 발생하여 도시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음
- 이에 ‘시흥시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 재생사업’이 2017년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스마트 도시재생을 접목한 안전한 환경 구축사업 추진이 시작되었고, 그중 도시재생의 문화-경제-아동 연계기반 마련을 위한 어울림센터 건립을 추진
- 이곳은 지역 내 모임·문화·교육 등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공간 확보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

표 8 시흥시 정왕동 어울림플랫폼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99-2번지 / 8,360㎡ • 사업규모: 어울림센터(12층), 행복주택(25층), 470세대, 주차장 455대 등 • 총사업비: 1,070억 원 • 도입시설: 어울림센터, 공공시설, 수익시설, 행복주택 • 어울림센터 도입기능(안): 복합 커뮤니티 시설, 50+일자리허브, 시립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컨벤션 등 전시시설, 실내 스포츠 시설, 공유 오피스, 생활안전인프라, 문화체험 상업시설 등
--

출처: 시흥시 내부자료.

3) 시흥시 정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2018. 11. 28 고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재정리.

■ 시설 현황

- 현 부지는 사유지로 잔디 시범운영단지로 운영되고 있음. 활성화계획의 단위사업 중 하나로 어울림플랫폼의 주요 도입기능으로 어울림센터(복합커뮤니티시설, 50+일자리허브, 시립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행복주택, 수익시설 등 도입 예정
- 어울림플랫폼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리츠(REITs)를 설립하여 시흥시와 LH가 협의를 하였고, 현재 민간사업자로 LH를 선정하여 업무협약을 완료
- LH는 2019년 9월 기본설계 완료 및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2020년 4월 공사 착공 예정

■ 성과 및 한계

- 어울림플랫폼은 문화·경제·아동을 연계한 도시재생 추진거점 확보를 통해 다양한 주민들의 필요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
- 또한 주변에 다양한 문화시설(시흥여성비전센터, 시흥 어울림 국민체육센터)들이 입지, 또는 입지 예정 중이기 때문에 어울림플랫폼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러나 현재 주변 오피스텔의 공실이 많은 상황에서 행복주택이 계획되어 있어 시민사회의 우려가 있음
- 시소유 유희부지를 활용하여 조성되는 어울림플랫폼은 주변의 체육 및 여성 문화시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도시재생사업에서 처음으로 계획이 완료되어 시공을 앞두고 있는 어울림플랫폼으로 향후 생활SOC의 복합화 추진 시 유의사항을 도출할 수 있음

5) 시사점 도출

■ 금산군 다락원,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 시흥시 정왕동 어울림플랫폼을 통해 거점시설 역할의 특징을 분석

- 세 개의 시설은 복합화된 기능을 통해 커뮤니티 거점시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거점시설의 역할을 위해서는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도입시설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며, 다양한 세대를 어우를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 도입으로, 지역의 여러 세대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접근성: 주민의 삶과 가까운 곳에서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 세 시설 모두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집객성: 다양한 계층이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세대 간 융합을 이룰 수 있는 집객요소 도입. 세 시설 모두 여러 시설의 복합을 통해 세대 간 융합
- 참여성: 이용자들이 거점을 통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도서관, 일자리허브, 공유 오피스, 요리교실 등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주민들의 참여성을 높임
- 단, 사업의 시급성은 각 사례지역의 노후주택단지 밀집도, 정비해제구역, 빈집 밀집도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사례 분석에서는 제외

표 9 사례 종합

구분	금산군 다락원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	시흥시 정왕동 어울림플랫폼
접근성	금산군청 등 주거밀집지역, 구도심과 접근성이 좋음	주택밀집지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외부접근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주거밀집지역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주민접근성은 매우 좋음	역세권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내·외부 접근성이 높음
집객성	문예회관+문화원+야외공연장+노인복지관+청소년수련관+장애인복지관+국민체육센터 등 12개 시설	도서관+마을커뮤니티룸 + 생활문화시설(문화강좌실, 어린이토론탈 등) 문화 플랫폼 역할	복합커뮤니티시설(컨벤션, 전시 기능)+시립어린이집+50+일자리허브+공유 오피스+임대주택
	특정계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집적되어 있어 다양한 계층이 이용 가능	도서관이라는 시설 특성상 다양한 연령 및 계층의 주민들이 이용 가능(청소년 주요 타겟)	시립어린이집과 50+일자리허브 등이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연령계층을 아우르는 주민유입 가능
참여성	요리수업, 청소년복지관, 문화강좌, 체육센터 등 주민참여성이 매우 높음	마을커뮤니티룸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의 다양한 의견 및 행사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공유 오피스 및 전시 컨벤션 기능을 통한 지역의 의견이 소통될 수 있는 공간 마련

출처: 저자 작성.

04 접근성 개념을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 과정

1) 분석의 개요

- 본 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 A구를 대상으로 거점시설 역할을 위한 생활SOC 시설복합화 과정을 도출하고자 함. 본 연구는 행정동 단위의 ‘구’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설정
- **(분석대상)** 분석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기준’의 마을단위시설 12개(세부 16개)시설을 중심으로 분석
 - 기초생활인프라 시설 16개: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전체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 의원, 약국, 생활체육시설, 도시공원, 소매점, 공영주차장
- **(분석자료)** 국토교통부 배포, 기초생활인프라 현황분석 시군구 분석자료(2018년 12월)
 - 본 데이터를 활용한 이유는 2018년 12월 개정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자료로 지자체의 활용 가능성이 큼. 또한, 주민이 누리는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및 향유수준을 시간거리와 접근성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주민체감도가 높아 쉽게 활용 가능함. 접근성 분석을 위한 격자에는 인구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 지역별 인구를 고려한 분석이 가능함
 -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 활용 및 기존 기준을 반영한 선언적인 기준으로 제시한 부분이 있지만, 국가가 선제적으로 전국 광역시도에 배포한 서비스 취약지역 및 접근성 현황자료 측면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음
- **(분석주요 내용)** 수요를 기반으로 현재 시설 공급 현황 분석을 통해 도입가능을 도출하고, 접근성 및 지역의 노후도(사업의 시급성)를 고려한 입지를 선정
 - 본 연구는 행정동 단위의 ‘구’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시민수요를 기반으로 한 접근성 분석, 생활SOC 도입가능 도출 및 입지 선정
 - 시민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수요시설을 도출하고, 현재 시설 공급 현황을 종합 검토하여 도입가능을 선정. 도출된 도입가능 시설의 시설별 접근성 분석(공간분석)과 지역의 노후도(사업의 시급성)를 종합하여 입지 선정

-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어떤 기능의 생활SOC를 어디에 공급할 것인지 복합 시설 기능 및 위치 선정과정 도출
- **(분석과정)** 분석은 총 7단계를 거쳐 진행
 - 분석은 총 7단계로 진행되며 단계별 거점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
 - **Step1:** 시민설문조사. 시민들이 원하는 생활SOC 시설을 도출 → **시민수요 도출**
 - **Step2:** 현재 시설별 위치. 시설의 중복을 막기 위한 유사시설별 **서비스 수준 분석** (천 명당 시설수) → **현재 서비스 수준 분석**
 - **Step3:** Step1+Step2 결과를 종합한 **도입기능 도출**
 - **Step4** 도출된 도입기능 시설의 **접근성 분석**(현재 광역시 중심으로 분석되어 배포되어 있는 시설별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분석자료를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분석. 이를 통해 좀 더 면밀한 시설별 서비스 취약지역을 분석하고, **시설별 향유수준을 도출** → **서비스 취약지역 및 공급시설의 목표 기준 설정**)
 - **Step5** 노후건축물 비율 분석 → **사업의 시급성 분석(빈집 적극 활용)**
 - **Step6** 복합시설 입지 도출 → **복합된 기능이 위치할 거점시설 입지 선정**
 - **Step7:** 광역 차원의 거점시설 위치 검토(광역) → 인근 지자체의 수요 및 접근성을 고려한 **광역 차원의 시설 위치 검토**
 - 시설공급 시 부지확보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나, 거점 시설의 기능선정 및 시설복합화 측면에서 고려사항이 아니기에 분석에서 제외

표 10 분석과정

분석 단계	분석 내용	거점시설 특성	비고 (주체)
Step1 주민설문조사	주민 수요조사(주민들이 원하는 생활SOC 시설)	참여성	기초 지자체
Step2 시설별 공급 현황 분석	현재 공급되어 있는 유사 시설별 서비스 수준 분석	접근성	
Step3 도입기능 선정	Step1(시민설문조사)+Step2(시설별 공급현황 분석) → 도입기능 선정	-	
Step4 접근성 분석	선정된 도입기능(기초지자체 중심)의 시설별 서비스 취약지역 도출	접근성	
Step5 노후건축물 비율 분석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비율(사업의 시급성) 분석을 통한 거점시설 입지 분석	시급성	
Step6 복합화시설 입지 도출	기능복합을 통한 거점시설 입지 도출	집객성	광역 지자체
Step7 광역차원의 거점시설 위치 검토	인근 기초지자체의 수요 및 접근성을 고려한 광역 차원의 시설 및 위치 검토		

출처: 저자 작성.

2) 생활SOC 복합화시설 선정 과정

■ Step1: 주민설문조사⁴⁾

- 3,6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시설공급에 대한 만족도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에 대한 의견 취합
 - (시설별 만족도) A구의 시설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별로 만족하는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67점으로 전반적으로 낮음
 - 시설별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은 공원으로 5점 만점에 2.23점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은 초등학교로 5점 만점에 3.22로 나타남
- 주민들이 지역에 추가로 제공되었으면 하는 시설 우선순위(수요조사 1순위)
 - (주민 요구시설)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추가로 제공되었으면 하는 기초생활인프라 시설' 1순위 비율을 분석
 -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도서관 및 교통시설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11 기초생활인프라 시설 우선순위 1순위 시설

시설 구분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수요조사 '1순위' 비율(%)	순위
교육시설	3.6	9
도서관	12.0	3
영유아 돌봄시설	2.7	10
노인 돌봄시설	0.9	11
의료시설	9.8	6
문화시설	17.3	1
체육시설	17.3	1
휴게 및 휴식시설	4.4	8
교통시설	12.0	3
주거편의시설	10.7	5
근린상업시설	9.3	7
계	100	

출처: '인천 원도심균형발전계획'의 시민설문조사에서 부분 발췌.

4) 주민설문조사 결과는 '인천 원도심균형발전계획'의 시민설문조사에서 부분 발췌.

표 12 A구 시설수에 대한 주민 만족도

구분	단위(%)					점수 5점 평균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있지만 부족하다	보통 이다	충분 하다	모르 겠다		
전체 평균						2.67	
초등학교	광역	0.8	10.4	46.2	38.2	4.4	3.27
	A구	1.3	9.3	50.7	32.9	5.8	3.22
유치원	광역	1.7	19.3	50.3	22.0	6.7	2.99
	A구	1.3	19.6	51.1	22.2	5.8	3.00
공공도서관	광역	10.8	27.8	39.4	20.1	2.0	2.72
	A구	10.7	35.1	36.4	16.9	0.9	2.60
사람·민간도서관	광역	15.8	28.3	39.1	12.6	4.1	2.52
	A구	17.3	28.0	37.8	13.3	3.6	2.49
작은 도서관	광역	12.0	29.0	40.4	15.0	3.6	2.61
	A구	11.6	30.7	32.0	20.9	4.9	2.65
어린이집	광역	2.6	17.9	48.3	25.3	6.0	3.02
	A구	2.2	16.4	50.2	25.8	5.3	3.05
경로당	광역	3.4	18.9	51.7	17.8	8.2	2.91
	A구	4.9	23.1	45.8	17.3	8.9	2.83
사회복지회관 또는 노인복지회관	광역	5.7	23.6	49.6	14.8	6.3	2.79
	A구	6.2	29.3	48.9	11.1	4.4	2.68
종합병원 및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광역	18.5	27.3	37.2	15.9	1.1	2.51
	A구	12.0	17.3	45.8	24.0	09	2.83
보건소	광역	8.1	26.5	49.8	12.5	3.1	2.69
	A구	10.7	26.7	44.9	15.1	2.7	2.66
기초의료시설 (의원, 약국, 건강생활지원센터)	광역	6.0	22.3	48.8	22.0	0.9	2.88
	A구	4.0	25.8	45.8	23.1	1.3	2.89
주거편의시설 (무인택배함, 폐기물수거함)	광역	13.9	24.3	46.3	12.2	3.3	2.59
	A구	20.0	24.9	39.6	11.1	4.4	2.44
전시·문화시설	광역	19.4	33.7	37.2	7.1	2.7	2.33
	A구	22.2	38.2	33.8	4.9	0.9	2.22
공공체육시설 (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광역	12.3	33.6	38.0	14.6	1.5	2.56
	A구	20.0	30.7	37.8	9.3	2.2	2.37
생활체육시설 (간이 운동장)	광역	9.5	30.6	43.3	15.1	1.5	2.65
	A구	15.6	33.8	39.6	7.6	3.6	2.41
지역거점 공원	광역	14.8	24.6	41.9	17.3	1.4	2.62
	A구	25.8	34.7	29.3	9.8	0.4	2.23
근린공원 (도시공원)	광역	10.1	25.2	42.7	20.1	2.0	2.74
	A구	17.8	30.2	39.6	8.0	4.4	2.40
주차장 (시군구 운영, 노상·노외·시설)	광역	6.8	34.6	45.3	11.5	1.8	2.63
	A구	15.1	43.6	35.1	4.4	1.8	2.29
서비스 지원시설 (공공 회의시설)	광역	10.1	26.3	46.3	10.2	7.1	2.61
	A구	14.7	29.3	41.8	8.4	5.8	2.47
근린 상업시설	광역	6.2	27.1	47.2	18.1	1.4	2.78
	A구	7.1	28.9	47.6	14.2	2.2	2.70

출처: '인천 원도심균형발전계획'의 시민설문조사에서 부분 발췌.

■ Step2: 공급시설 현황 분석

- 기초생활인프라 시설별 공급현황을 인구 1,000명당 시설수로 살펴보면, A구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수가 인구에 비해 적게 분포하고 있음
 - 특히 A구 천 명당 어린이집 10.11개, 유치원 2.00개, 초등학교 1.24개/경로당 2.54개, 노인교실 0.04개, 노인복지관 0.06개/공공도서관 0.08개로 분석됨
 - 경로당과 노인교실,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시설수가 광역시의 평균 개수보다 낮음. 공공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시설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도 낮게 나타남
 - A구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현황은 광역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

표 13 A구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구분	A구 시설현황(수)	연령기준	A구	A구	광역		
			연령별 인구수 (19.3기준)	시설수/천인 (해당연령)	평균 천인 당 시설수		
보육/교육	어린이집	248	24,530	10.11	12.37		
	유치원	총계			49	2.00	3.79
		공립			14	0.57	2.07
		사립			35	1.43	1.71
		초등학교			총계	23	1.24
	초등학교	국·공립			23	1.24	1.04
사립		-	-	0.07			
사회복지	경로당	162	65세 이상	63,655	2.54	5.87	
	노인교실	4	60세 이상	94,834	0.04	0.05	
	노인복지관	4	65세 이상	63,655	0.06	0.08	
학습	도서관	총계	전체 연령	415,172	0.06	0.17	
		공공도서관			0.02	0.04	
		작은도서관			0.05	0.10	
		동네서점			0.01	0.03	
의료	보건소	2	전체 연령	415,172	0.00	0.08	
	약국	174			0.42	0.47	
	요양병원	15	65세 이상	63,655	0.24	0.21	
	응급의료시설	2	전체 연령	415,172	0.00	0.01	
	의원	330			0.79	0.92	
	종합병원	2			0.00	0.01	
	한방병원	6			0.01	0.01	
	한의원	91			0.22	0.27	
건강생활지원센터	1	0.00	0.06				
문화	문화예술회관	5	전체 연령	415,172	0.01	0.01	
	박물관 및 전시관	5			0.01	0.02	
체육	체육시설	243	전체 연령	415,172	0.59	0.87	
휴식	도시공원	123	전체 연령	415,172	0.30	0.38	
생활편의	소매점	698	전체 연령	415,172	1.68	1.85	
교통	공영주차장	121	자동차 등록대수	206,599대 (18.3분기 기준)	0.59 (시설수/천 대)	0.96 (천 대당 시설수)	

출처: 통계청 자료(기초생활인프라시설수, 2016년 기준)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시설별 향유수준 현황을 분석
 - 향유수준은 접근편의 수준에 따라 시설별로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분포
 - 시설별로 누적인구 90%가 거주하는 등급이 10등급에 가까울수록, 행정구역 내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의미
 - A구의 경우 국공립유치원, 초등학교, 국공립어린이집은 광역과 동일한 향유수준을 보였으나, 시설 대부분이 광역의 향유수준보다 열악한 수준을 보임. 특히 도서관과 공영주차장은 광역의 향유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시설별 향유수준은 향후 기초지자체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사업추진 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지표로, 단기적으로는 광역수준의 접근편의 수준을 목표로 추진하며, 장기적으로는 전국 수준의 접근성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지표로 활용

표 14 시설별 향유수준

구분	접근편의 현황									
	〈양호〉 ←					→ 〈열악〉				
	10	9	8	7	6	5	4	3	2	1
1 국공립유치원★				A구 전국	광역					
2 사립유치원★		전국			광역		A구			
3 전체 유치원★				전국	광역	A구				
4 초등학교★				전국		A구 광역				
5 도서관				전국	광역			A구		
6 국공립어린이집★			전국			A구 광역				
7 민간어린이집★		전국			광역		A구			
8 전체 어린이집★				전국	광역	A구				
9 경로당★			전국	광역	A구					
10 노인교실★				전국	광역	A구				
11 의원					전국	광역			A구	
12 약국				전국		광역			A구	
13 생활체육시설				전국			광역		A구	
14 도시공원				전국	광역				A구	
15 소매점				전국		광역			A구	
16 공영주차장				전국	광역					A구

주: ★ 시설은 특정 연령층이 활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8c를 재가공하여 저자 작성.

■ Step3: 도입가능 도출

- 수요를 기반으로 한 주민 요구시설 도출
 -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시설을 전제로, 현재 공급되고 있는 시설 공급현황을 고려하여, 최종 도입가능 도출
 - 주민 수요조사 결과 우선순위가 높은 시설(1순위) 중 순위가 높은 4개 도출: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교통시설(동점을 고려한 3순위까지 도출)
 - 시설 공급현황: 천 명당 시설수 및 시설별 향유수준을 광역 및 전국 수준과 비교하여 시설별 어느 수준의 향유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부족시설 도출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A구의 도입가능은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공영주차장**으로 도출
 - 주민 수요조사+공급현황+시설 향유수준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도입가능 선정**
 - 최종적으로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시설 선정

표 15 주민 수요조사+시설공급 수준을 고려한 도입시설 도출

구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전체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	전체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	의원	약국	생활체육시설	도시공원	소매점	공영주차장
1 수요조사*					○								○			○
2 공급현황**	○	○	○	○	○			○	○	○	○	○	○	○	○	○
향유수준***		○	○		○		○	○	○	○	○	○	○	○	○	○
도입가능					○								○			○

* : 주민요구시설 1순위 시설

** : 기초지자체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이 광역지자체 기준에 비해 미달되는 지역

*** : 전국 및 광역 수준에 비해 향유수준이 열악한 지역

출처: 저자 작성.

■ Step4: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분석

- 기초생활인프라 200*200 격자형 접근성 분석을 기준으로 시설별(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기준 분석
 - 광역 기준으로 배포된 격자형 접근성 분석자료를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16개 시설을 중심으로 분석. 사업의 추진주체로서 역할을 하는 기초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보다 면밀한 서비스 취약지역 및 향유수준 파악
 - 접근성 기준은 주민의 삶과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해야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분석

- **(분석결과)** 16개의 시설 중 서비스 취약지역이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설 및 지역 추출
 - 16개 시설을 대상으로 국가적 최저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서비스 소외지역을 분석
 - 특히 선정된 도입기능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공영주차장의 접근 소외지역을 검토
- 분석대상 16개 시설의 시설별 국가 최저기준과 이에 해당하는 인구 비중을 계산
 - 기초생활인프라 마을단위시설에 대한 1인당 접근성을 진단하여 등급별 구간 한계거리와 누적인구비율을 검토
 - 최저기준 이하 인구비중이 높은 시설 순으로는 노인교실(95.7%) > 국공립어린이집(78.2%) > 국공립유치원(63.4%) > 사립어린이집(26.9%) > 사립유치원(23.6%) > 초등학교(22.0%) > 전체 유치원(16.9%) > 전체 어린이집(12.6%) > 도서관(11.2%) > 경로당(9.9%) > 공영주차장(2.0%) 순으로 분석됨

표 16 시설별 국가적 최저기준 및 최저기준 이하 인구비중

구분	국가적 최저기준	기준 이하 면적(㎡)	전체 면적 대비 기준 이하 면적 비중	최저기준 이하 거주인구(인)	전체 인구 대비 기준 이하 인구 비중	
1	국공립유치원	500m	9.64	39.4%	266,023	63.4%
2	사립유치원	500m	3.52	14.4%	98,990	23.6%
3	전체 유치원	500m	2.48	10.1%	70,829	16.9%
4	초등학교	500m	3.6	14.7%	92,178	22.0%
5	도서관	750m	2.04	8.3%	46,919	11.2%
6	국공립어린이집	250m	12.32	50.3%	328,026	78.2%
7	사립어린이집	250m	4.68	19.1%	112,662	26.9%
8	전체 어린이집	250m	2.36	9.6%	52,711	12.6%
9	경로당	250m	2.6	10.6%	41,427	9.9%
10	노인교실	500m	16.64	68.0%	401,126	95.7%
11	의원	1,250m	0	0.0%	-	0.0%
12	약국	1,000m	0	0.0%	-	0.0%
13	생활체육시설	750m	0.04	0.2%	26	0.0%
14	도시공원	750m	0	0.0%	-	0.0%
15	소매점	500m	0.08	0.3%	44	0.0%
16	공영주차장	500m	1	4.1%	8,585	2.0%

* A구 면적 : 24.47(㎡)

출처: 국토교통부, 2018c를 재가공하여 저자 작성.

[그림 5 ~ 그림 7] 시설별 국가적 최저기준 서비스 소외지역 분석

- 국토교통부는 '18년 12월, 마을단위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을 시간단위(분)로 발표하였으나, 분석을 위하여 거리환산값(M)을 사용하여 거리 기준으로 분석(시설별 국가적 최저기준은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시간)을 보행속도 시속 3km로 재환산한 '국가적 최저기준 거리환산값' 사용)
- 하나의 격자(200*200)는 지역의 인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정연령이 사용하는 시설은 해당인구 적용. 또한 시설별로 국가적 최저기준은 상이(붙임 시설별 국가적 최저기준표 참고)
- 시설별 국가적 최저기준 대비 접근성이 양호하면 초록색, 접근성이 소외될수록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

그림 5 A구 도서관 접근성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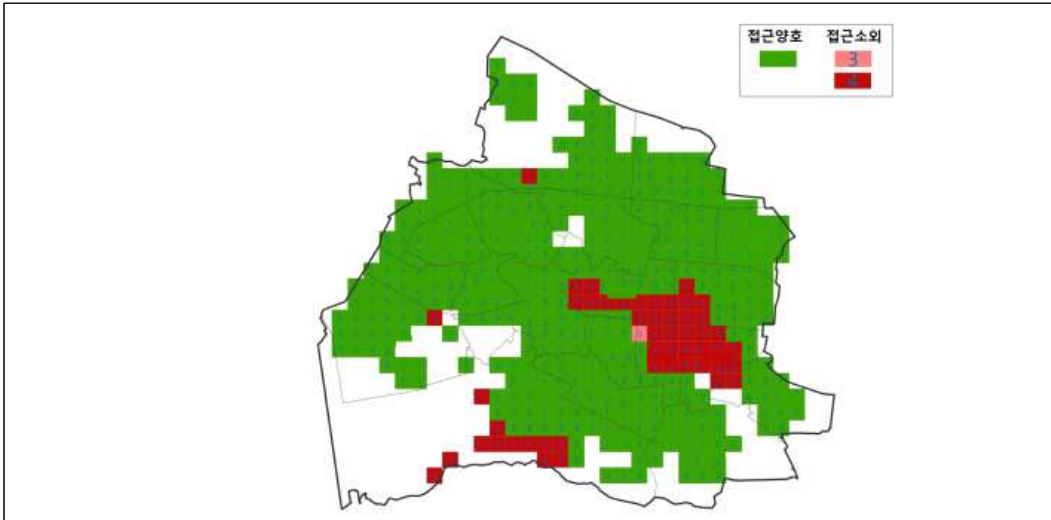


그림 6 A구 생활체육시설 접근성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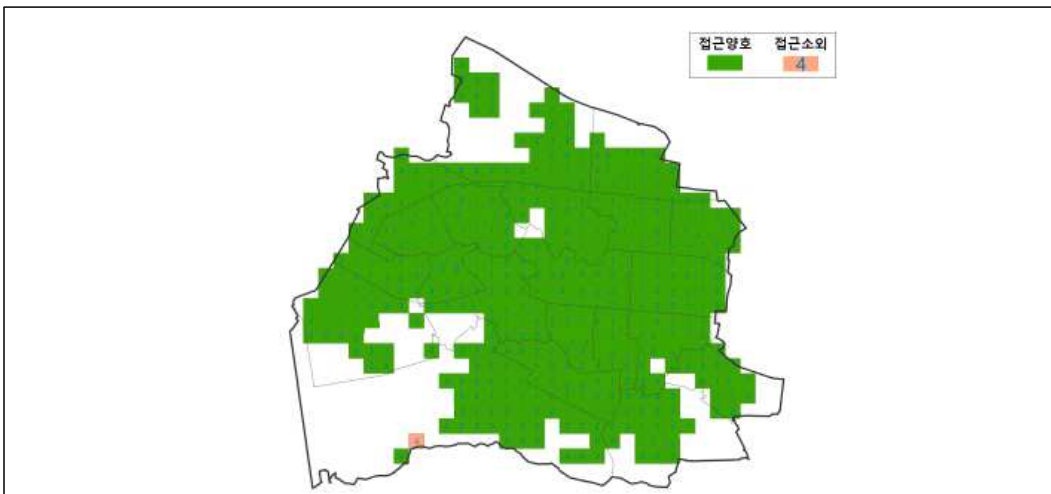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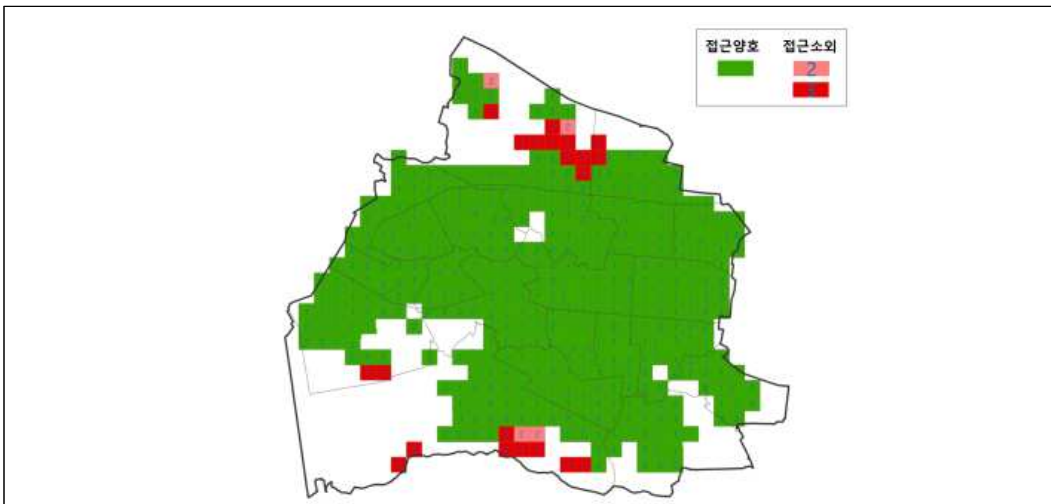


그림 7 A구 생활체육시설 접근성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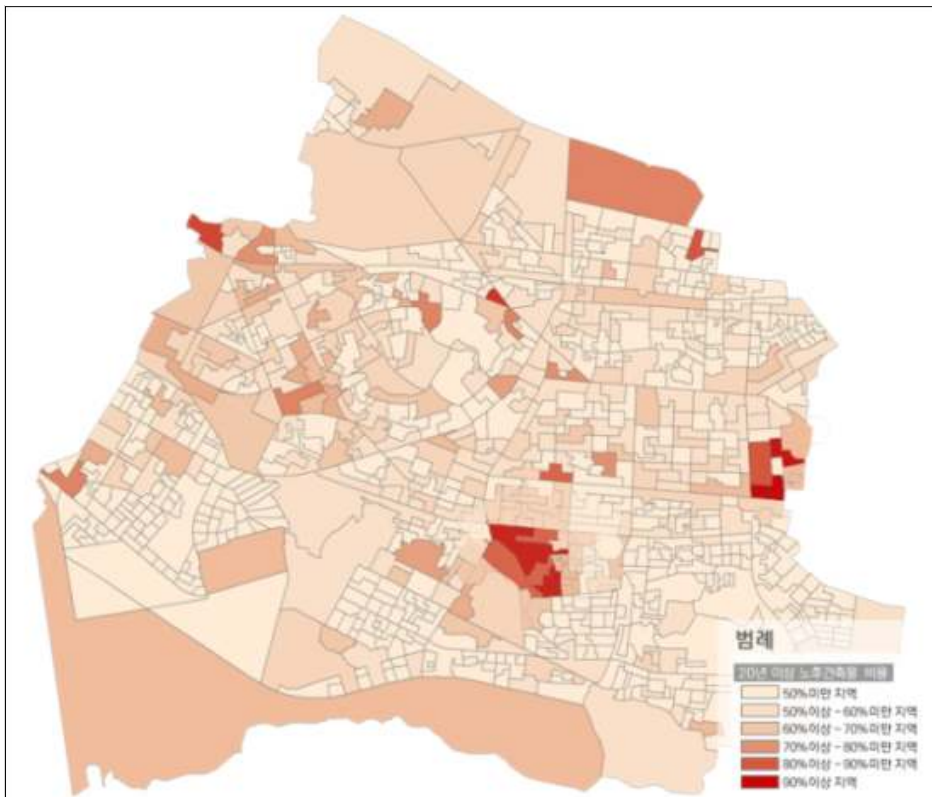


출처 : (상, 중, 하) 국토교통부 2018c를 재가공, 저자 작성.

■ Step5: 노후건축물 비율 분석

- 지역의 생활SOC가 취약한 지역을 도출하기 위해 노후건축물 비율 분석
 -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비율 분석을 통한 사업의 시급지역 분석
 - 거점시설로 활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건축물 밀집지역 중 특히 빈집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거점공간으로 적극 이용 가능

그림 8 A구 노후건축물 비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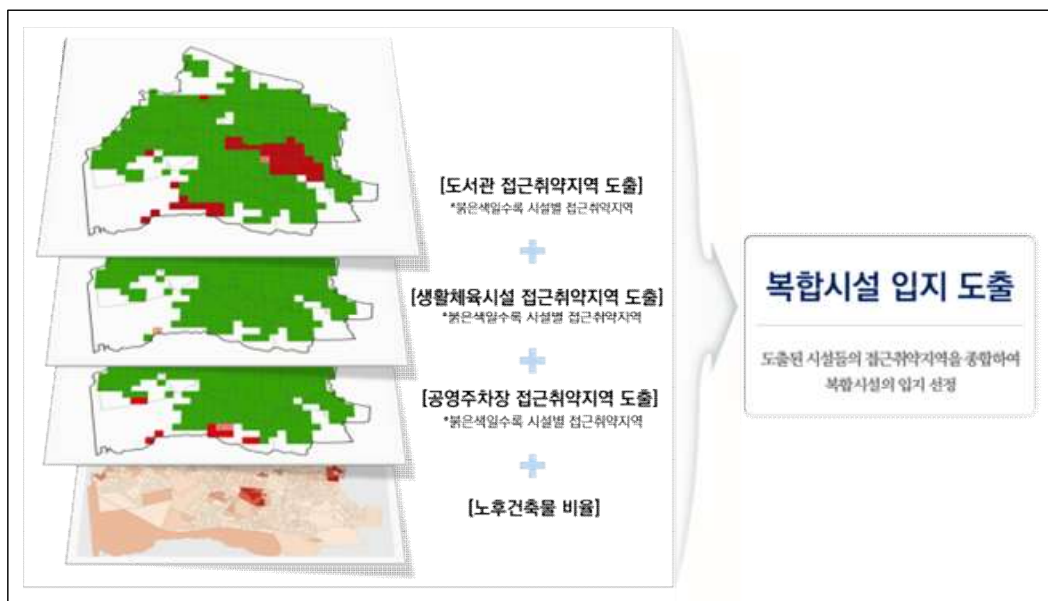


출처: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도시쇠퇴현황 자료(노후건축물)를 재가공, 저자 작성.

■ Step6: 복합시설 입지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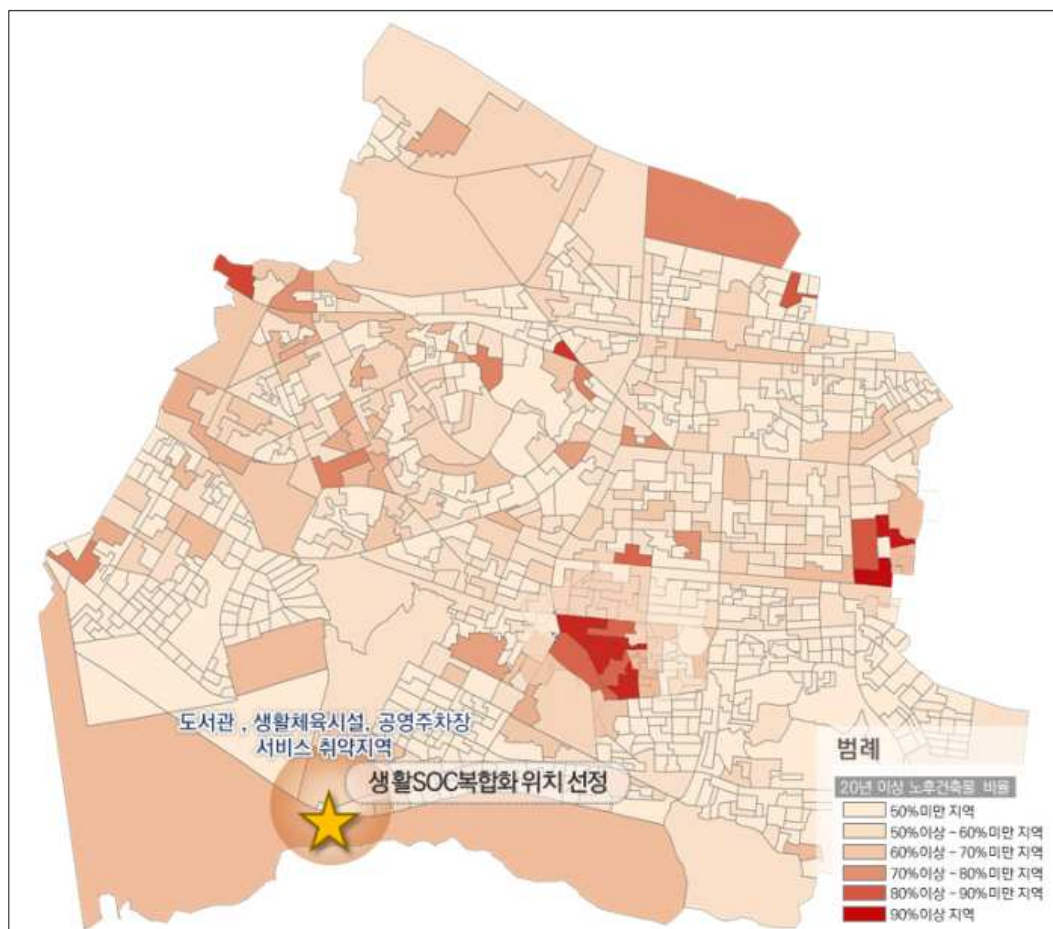
- 도출된 기능의 접근성 서비스 취약지역 + 노후건축물 밀집지역 → 사업지역 도출
 - 주민 수요조사를 전제로 한 기능 도출(주민설문조사+시설별 공급현황=>도입기능 선정)
 - 접근성 분석을 통해 시설별 서비스 수준을 분석. 이를 통해 시설별 서비스 취약지역 도출
 - 서비스 취약지역을 중첩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 중 가장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도출
 - 이와 함께 사업이 가장 시급한 지역 도출을 위해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을 함께 중첩하여 검토. 이를 모두 중첩하여 최종 사업지역 선정
 - 또한 선정된 지역의 빈집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에 저·미이용되는 부지를 다각적으로 활용가능한 방법 모색

그림 9 복합시설 입지 도출 과정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0 생활SOC 복합화 지역 도출



출처: 저자 작성.

■ Step7: 광역 차원의 거점시설 위치 검토 및 조정

- 인근 지자체의 복합화 수요를 고려한 광역주도의 복합화시설 위치 검토
 - 인근 지자체의 복합화시설수요를 고려하여, 중복시설을 제외하고 다양한 복합화 시설이 위치할 수 있도록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한 광역 차원의 위치 검토
 - 접근성 개념을 적용하면, 연결해 있는 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수요 또한 고려되나, 생활SOC 시설복합화 계획은 기초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으므로 광역시 중재가 필수적
 - 광역 차원의 위치 검토를 위해 광역 수준의 ‘생활SOC 종합계획 수립’ 필요

3) 분석결과의 활용방안

- 본 연구의 ‘생활SOC 복합화 과정’은 다양한 수요조사의 결과를 하나로 취합하여 복합화시설(기능) 및 위치를 도출해내는 것에 의의가 있음
 - Step1) 주민설문조사
 - Step2) 시설별 공급현황 분석
 - Step3) 주민설문조사와 시설별 공급 현황을 종합 고려한 도입기능 선정 → 기능 도출
 - Step4) 접근성 분석(서비스 취약지역 도출)
 - Step5) 노후건축물 분석
 - Step6) 복합화시설 입지 도출 → 입지 도출
 - Step7) 광역 차원의 거점시설 위치 검토
- 분석결과를 통해 추후 생활SOC 복합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자체 추진사업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 생활SOC 복합시설이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역할을 위해서는 지역의 인구 및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복합화를 추진하여야 함

05 정책제언

- 본 연구는 지역의 거점시설 역할을 하는 **생활SOC 복합시설 선정과정과 광역·기초 지자체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생활SOC 복합시설의 기능 및 입지 선정을 위해 접근성 개념을 적용한 서비스 사각지대 및 시민수요, 유사시설 중복여부 등을 분석
 - 또한, 사업추진의 혼선 최소화 및 추진과정에 따른 중앙정부/광역/기초지자체의 주체별 역할을 제시
- 생활SOC 복합화 과정을 도출하는 방법론에 초점을 맞춤
 - 본 연구에서는 복합화의 과정을 7단계로 제시
 - 현재 정책의 복합화 과정은 지역 내 유사시설에 대한 검토와 시설의 필요성, 사업 집행 가능성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으나, 현재 시설의 접근성 등 서비스 수준에 대한 파악은 어려움
 - 생활SOC 복합화 과정(7단계): Step1) 주민설문조사 → Step2) 시설별 공급현황 분석 → Step3) 주민설문조사와 시설별 공급현황을 종합 고려한 도입가능 선정 → Step4) 접근성 분석(서비스 취약지역 도출) → Step5) 노후건축물 분석 → Step6) 복합화시설 입지 도출 → Step7) 광역 차원의 거점시설 위치 검토
- 생활SOC 복합화 과정에서 주체별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제시
 - 생활SOC 복합화시설의 추진과정에 따라 주체별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함
 - **중앙정부는** 부처별 칸막이식 행정을 탈피하여 통합적 생활SOC 사업을 단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부처별로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광역시는** '생활SOC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개별 기초지자체와 인근 지자체의 유사시설 중복 여부 등을 광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 또한, 유사 중복시설이 한 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관리·조정과 함께 지역에 효과적인 시설 공급을 위한 중재 역할을 하도록 함. 운영 측면에서는 복합된 시설이 연령 및 주민 특성에 따라 각각 운용됨과 동시에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유도

- 이와 함께 생활SOC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광역 차원의 사회적 경제 및 협동조합 등 지역의 일자리와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함
-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의 시행주체로서 지역의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 분석을 통해 서비스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시민의 수요 및 재생연계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에 맞는 생활SOC 복합 사업을 제시
-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설 조성 이후 운영 관리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방안을 광역/시도와 함께 모색하여야 함
- 생활SOC 복합화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시의 물리적 환경 및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춘 광역 차원의 ‘생활SOC 종합계획수립 및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현재 서울을 제외한 시도에서는 생활SOC 공급을 위한 종합계획이 없어, 지역의 수요를 취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지역에 맞는 효과적인 시설 공급을 위하여 인구, 환경, 기존 시설,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 및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한 광역 차원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필요
 - 생활SOC 추진 주체는 기초자치체이나, 광역단위의 종합계획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는, 행정구역의 문제로 인근 기초자치단체에 유사 중복시설이 위치할 경우, 광역 차원에서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종합적인 도시 단위의 계획이 필요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SOC의 범위 설정 및 공급방향 설정, 광역시의 생활SOC 현황 실태 DB 구축, 접근성 개념을 활용한 DB 활용 생활SOC 결핍지역 추출 및 평가, 생활SOC별 공급 가이드라인 작성, 지역별 확충 계획 마련 등이 있음
 - 또한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지역의 거점으로서 역할하기 위해, 주민들이 원하는 목적과 요구시설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기반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본 연구의 생활SOC 접근성 분석은 시설의 양적 수준을 평가할 뿐, 서비스 질적 수준을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짐. 하지만 주민들의 서비스 취약지역을 공간적으로 도출해내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시, 시설별 질적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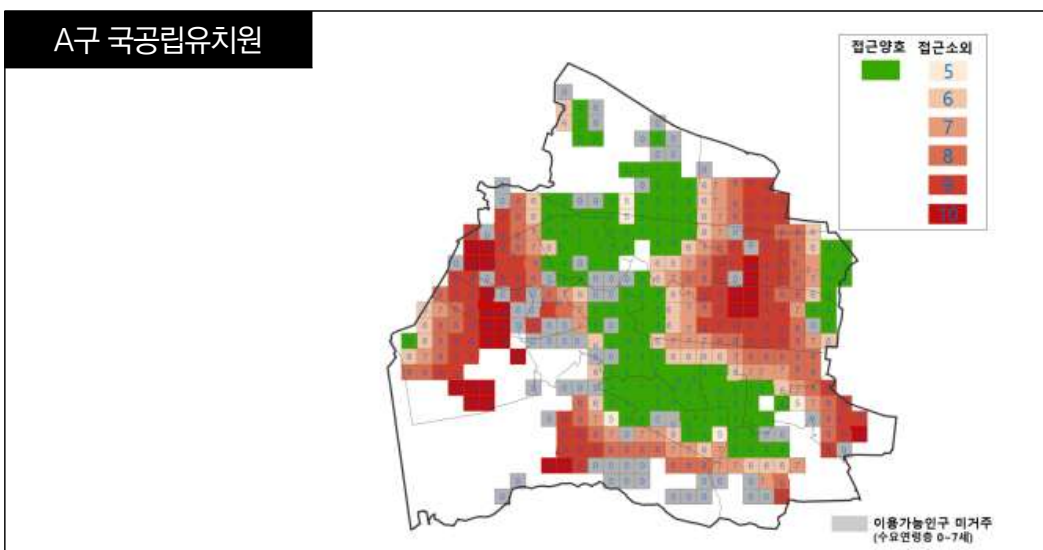
붙임 국가적 최저기준을 활용한 기초생활 인프라 접근성 분석

- ○○ 광역시 A구를 사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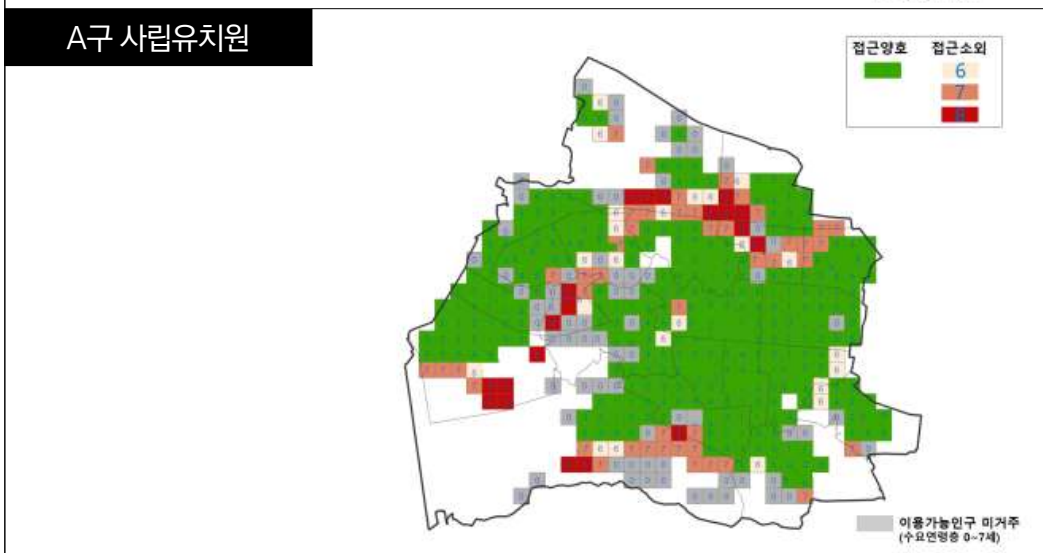
[시설별 국가적 최저기준 서비스 소외지역 분석]

- 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 마을 단위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을 시간 단위(분)로 발표하였으나, 분석을 위하여 거리환산값(M)을 사용하여 거리 기준으로 분석(시설별 국가적 최저기준은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시간)을 보행속도 시속 3km로 재환산한 '국가적 최저기준 거리환산값' 사용)
- 하나의 격자(200*200)는 지역의 인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정연령이 사용하는 시설은 해당 인구 적용. 또한 시설별로 국가적 최저기준은 상이
- 시설별 국가적 최저기준 대비 접근성이 양호하면 초록색, 접근성이 소외될수록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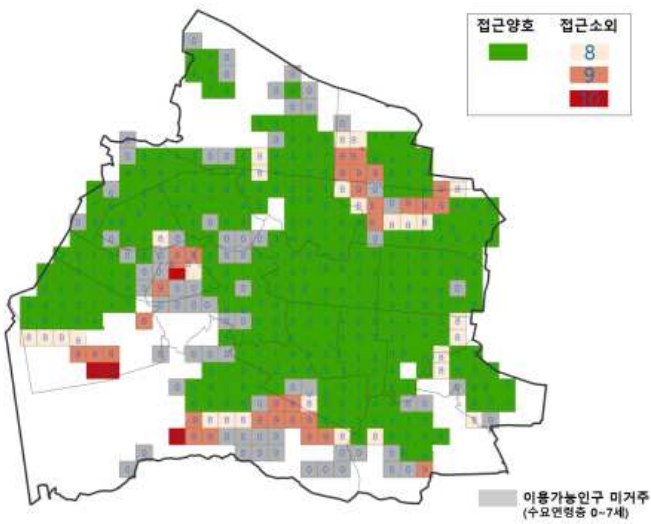
A구 국공립유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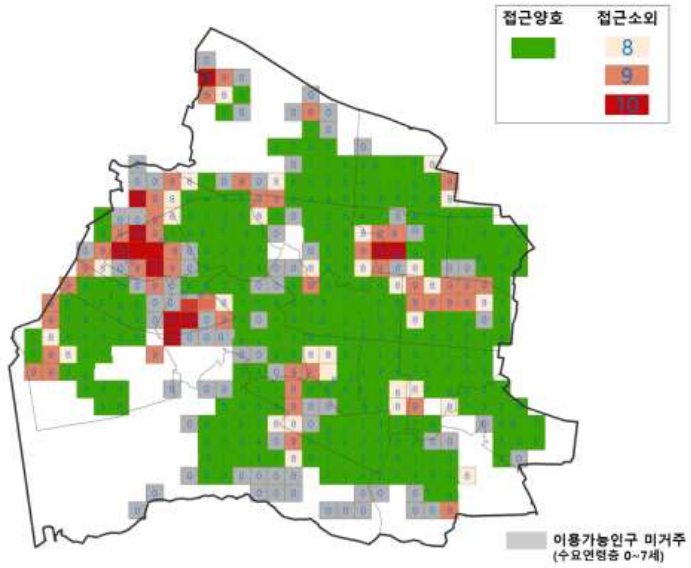
A구 사립유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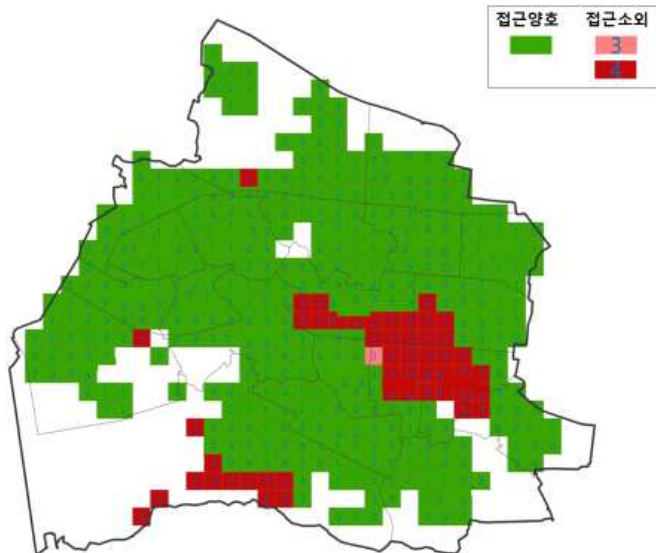
A구 전체 유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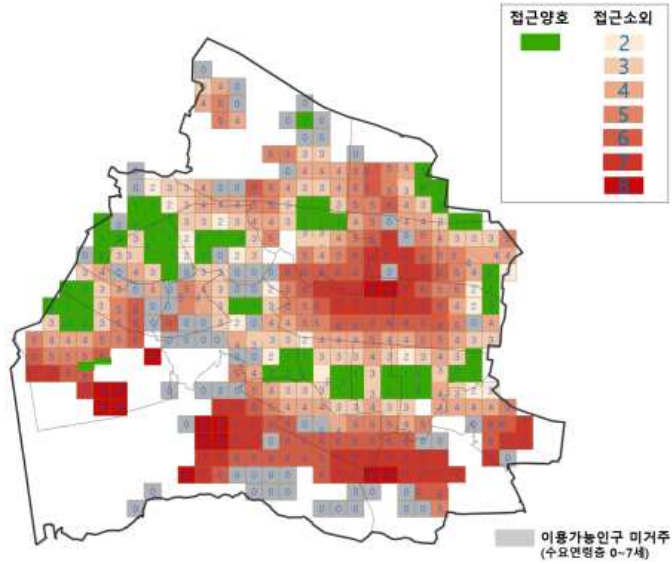
A구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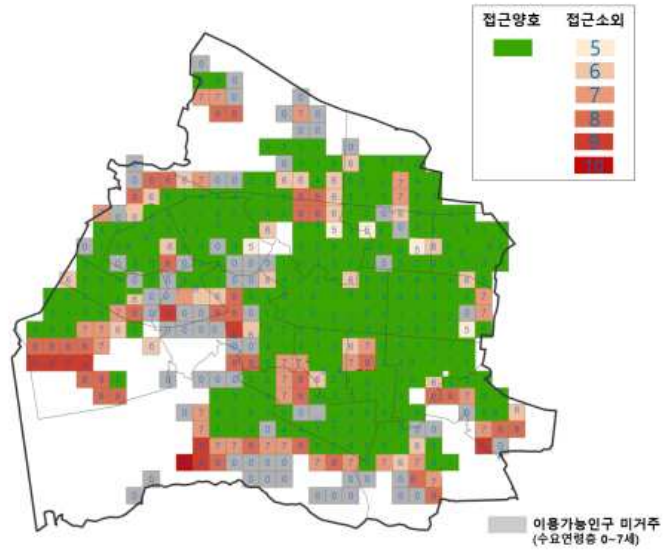
A구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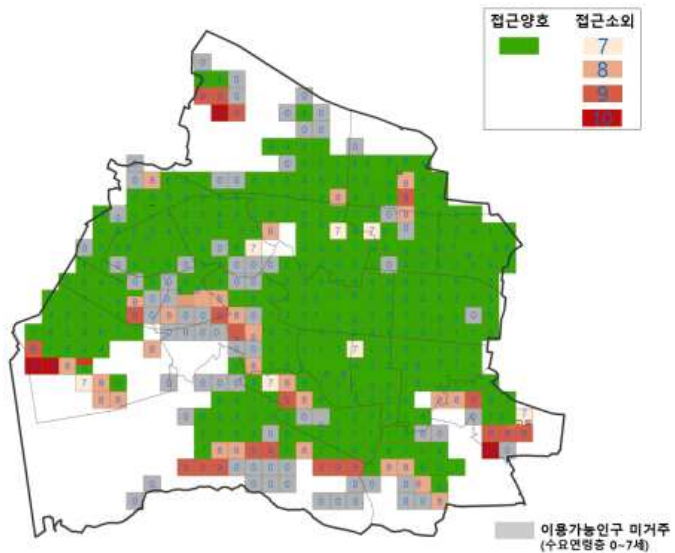
A구 국공립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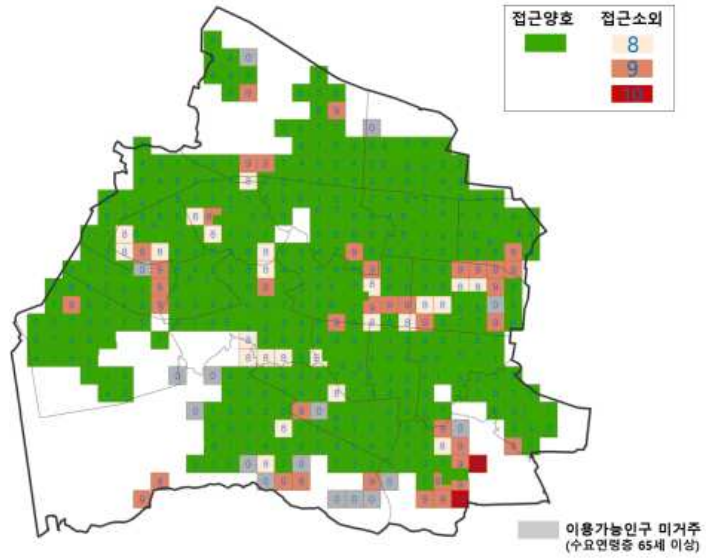
A구 민간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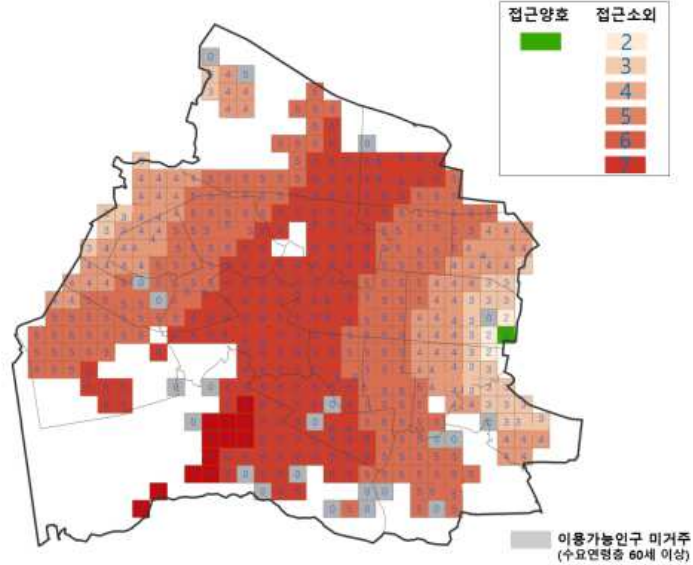
A구 전체 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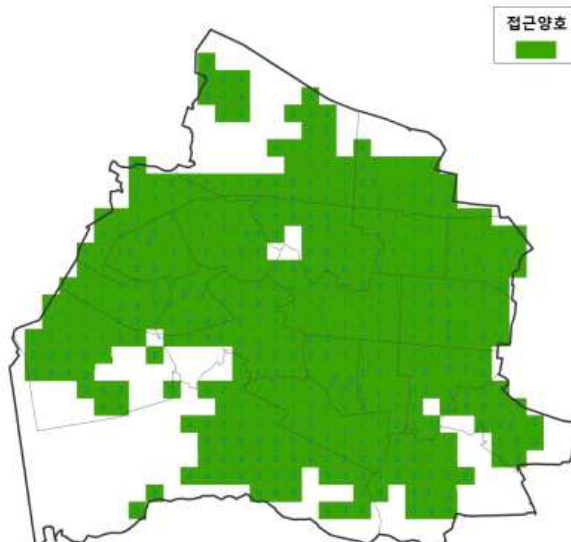
A구 경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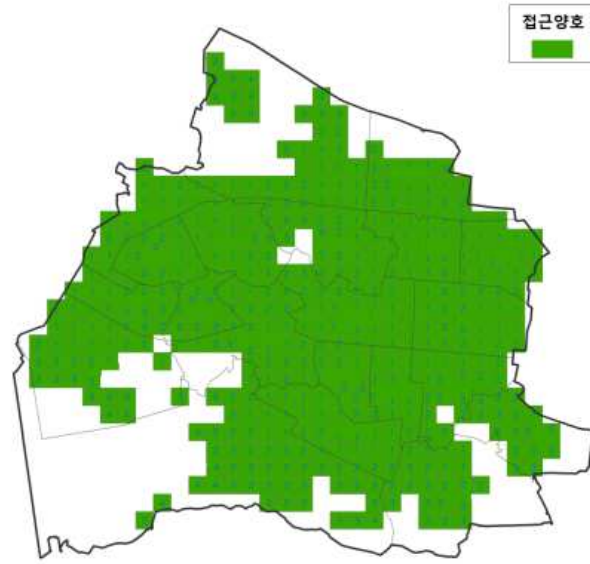
A구 노인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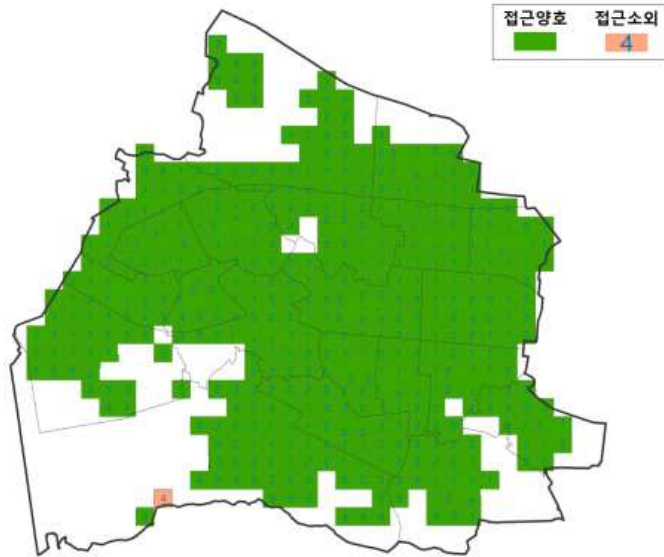
A구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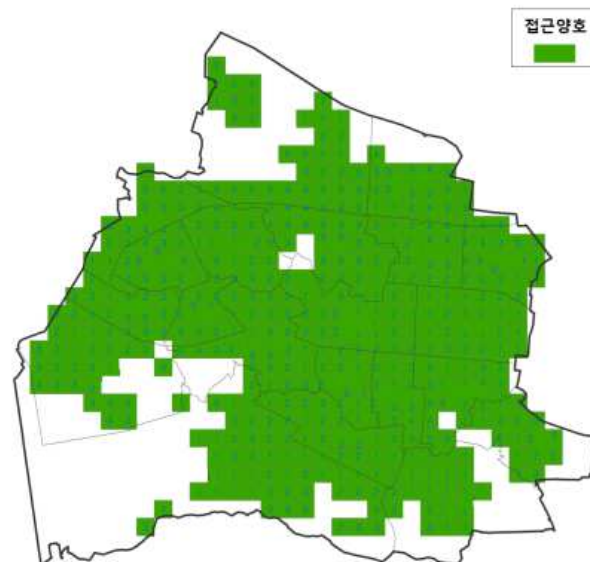
A구 약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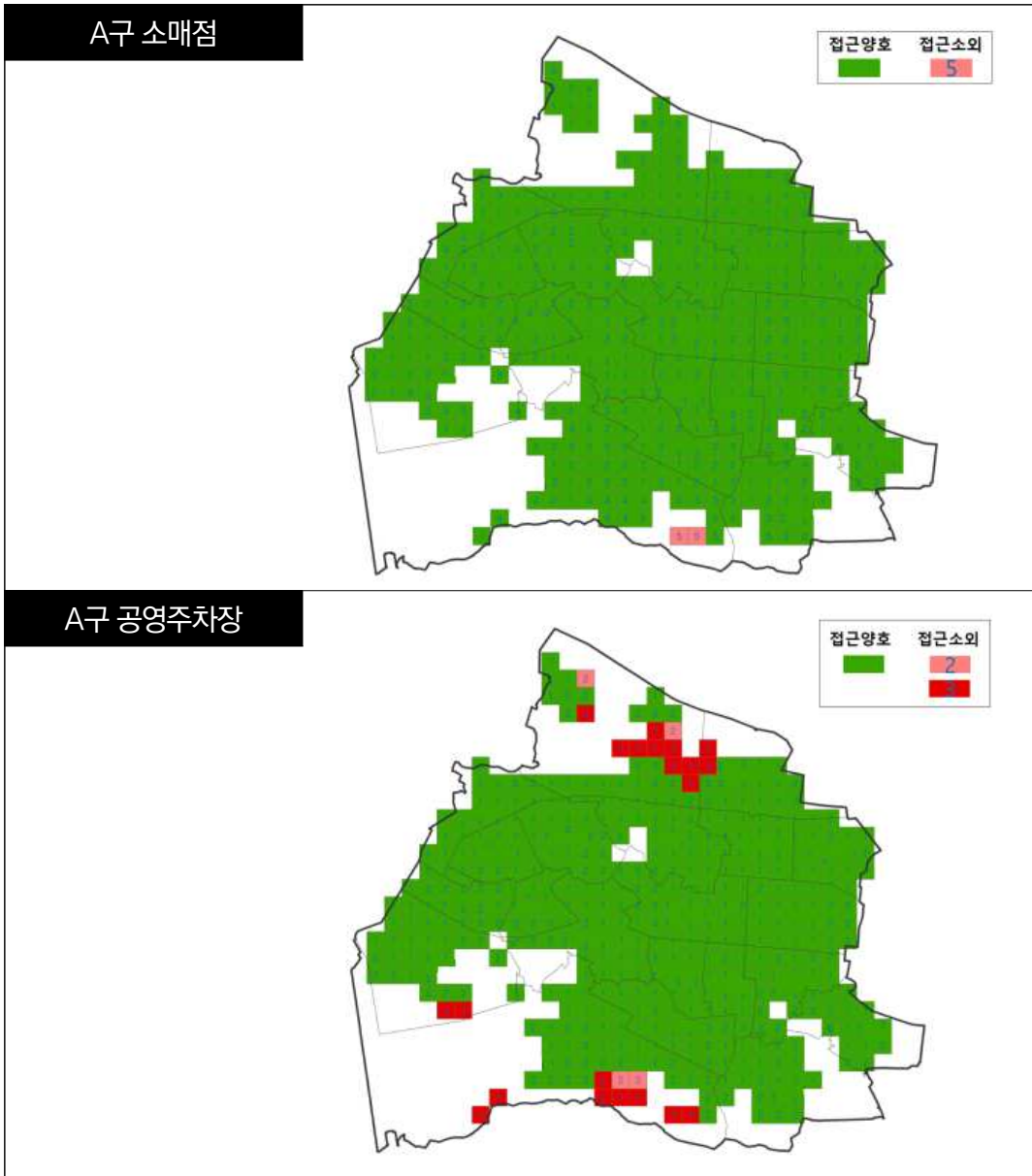


A구 생활체육시설



A구 근린공원





[참고] 시설별 국가적 최저기준 및 시간기준

구분	구분	국가적 최저기준	시간기준
1	국공립유치원	500m	도보 5~10분
2	사립유치원		
3	전체 유치원		
4	초등학교	500m	도보 10~15분
5	도서관	750m	도보 10~15분
6	국공립어린이집	250m	도보 5분
7	사립어린이집		
8	전체 어린이집		
9	경로당	250m	도보 5분~10분
10	노인교실	500m	지역 보건의로 수요를 고려하여 서비스 전달 추진
11	의원	1,250m	도보 10분
12	약국	1,000m	도보 10~15분
13	생활체육시설	750m	도보 10분
14	도시공원	750m	주거지역 내 주차장 확보율 70% 이상
15	소매점	500m	도보 10분
16	공영주차장	500m	도보 10분

출처: 국토교통부 2018c.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18. 지역밀착형 생활SOC 합동브리핑, 8월 27일. 발표자료.
- _____. 2019a. 생활SOC 3개년 계획(안)(2020~2022), 4월 15일. 보도자료.
- _____. 2019b.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6월 13일. 발표자료.
- 국토교통부. 2013.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 세종: 국토교통부.
- _____. 2018a.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개정). 세종: 국토교통부.
- _____. 2018b.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3월 18일. 보도자료.
- _____. 2018c.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현황 자료 및 분석안내서. 세종: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https://www.city.go.kr/index.do> (2019년 9월 25일 검색).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7197호, 19년 5월 16일 조례 제정)
- 시흥시. 2018. 정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보고서. 시흥: 시흥시청.
- _____. 2019. 정왕동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내부자료.
- 신혜정. 2005. 금산 다락원의 행정적 건립배경과 건축계획 및 활용에 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정, 정진주, 최효승. 2005. 금산 다락원의 건립과정과 건축계획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연합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n.2005, v.01: 125-129.
- 인천광역시. 2019. 인천원도심균형발전계획 시민설문조사, 내부자료.
- 임미화, 이승희, 손순금, 전유신, 박병순, 박경아, 최호정. 2019. 생활SOC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 도시정보 수록면수. 서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최재연, 김찬호. 2015.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의 특성과 역할. 국토계획 제50권 ??호: 수록면수.
- 이병민. 2019. 생활밀착형SOC, 지속가능하려면. 프레시안, 7월 12일.
http://m.pressian.com/m/m_article/?no=248656#08gq (2019년 9월 20일 검색).
- 임유경, 김수빈, 김지현. 2017. 우리함께 만드는 공공도서관: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세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굿모닝충청, 2015. 금산다락원, '건강·문화·복지 요람' 자리매김, 4월 22일.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134> (2019년 9월 25일 검색).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재생포털(<https://uri.seoul.go.kr/surc/seoulInfo/socPilotProjectPromotion.do>, (2019년 9월 25일 검색).

국토연구원 Working Paper는 다양한 국토 현안에 대하여 시의성 있고 활용도 높은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험정신을 가지고 작성한 짧은 연구물입니다. 투고된 원고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발간되며, 외부 연구자의 투고도 가능합니다. 공유하고 싶은 새로운 이론이나 연구방법론, 국토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찬반 논의, 국내외 사례 연구나 비교연구, 창의적 제안 등 국토분야 이론과 정책에 도움이 될 어떠한 연구도 환영합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분은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044-960-0582, jhkim@krihs.re.kr)으로 연락주십시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WP 19-17

도새재생 거점시설 역할을 위한 생활 SOC 복합화 방안

시설별 국가적 최저기준을 적용한 접근성 분석

연구진 김유란
발행일 2020년 2월 5일
발행인 강현수
발행처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 2020,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출판인협회에서 제공한 KoPub 서체와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제공한 바른바탕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